

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

■ 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

☐ 개최일시 : 2016. 1. 26.(화) 10 : 19 ~ 12 : 40

☐ 개최장소 :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

☐ 참석인원

○ 위 원 : 5명 (차준택, 유일용, 허 준, 신영은, 이영훈)

○ 공무원 : 유준호 홍보기획담당, 성용원 시민소통담당관, 정중석 감사관

☐ 주요내용

1. 2016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보고

※ 참석위원 : 5명(차준택, 유일용, 허준, 신영은, 이영훈)

☐ 자료요구

☐ 질의 및 답변

<신영은 위원>

○ 각 부서장과 신문기자들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함. 계획이 있나?

→ 필요성 인지하고 있고 대변인 오시면 보고하고 적극 검토하겠음.

○ 시민의 힘을 결집시키는 행사 등 전년도보다 확대된 것은 있나?

→ 다른 실국과 협조해서 하는 것은 파악해보고 보고 드리겠음.

○ IDC건물 벽면이 무지 넓은데 본청 앞 벽면에만 홍보현수막을 붙일 게 아니라 거기에 시정홍보물 크게 게시하면 홍보효과도 좋지 않을까 생각함. 지난번에도 말했었는데 검토해주시길.

○ 재래시장 매출이 1/2감소했다고 보고 받았음. 그 대책중 하나로 “스마트 거래”라는 방법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건데 시정홍보도 그런쪽으로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함.

< 이영훈 위원 >

○ 작년에 홍보효과 분석 결과 나왔죠? 어떻게 홍보효과가 좋다고 나왔나?

→ 젊은층은 온라인매체 선호도가 높게 나왔고, 전체적으로는 옥외광고 물이 홍보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왔음.

○ 결과가 나오면 활용을 해야 하는데 업무보고 보면 전년도와 달라진 것이 없다. 전년도보다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나? 신문, 방송 예산이 증가한거 같은데?

→ 연구용역 결과가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홍보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며, 신문, 방송, 해외홍보 쪽은 수요가 많아서 예산이..

○ 다문화가족 신문 다사랑은 폐간 됐나요?

→ 예산지원이 안돼서 중단됐음. 다사랑이 큰 호응을 받은건 사실이지만 다문화가족이 시정홍보를 접할 수 있는 루트가 굿모닝인천, 인천나우, 인천지창 등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재원을 배분한 것임.

○ 다문화 가족 수요가 많음에도 예산 때문에 폐간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거 같다.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? 다른데는 다 늘어나는데?

→ 단지 예산 때문은 아니고.. 다문화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소관부서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쪽으로..

< 허준 위원 >

○ 2016년도 가장 중점적으로 홍보할 내용은 무엇이라 생각하나?

→ 신임 대변인이 오시면 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듯하고..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천가치재창조에 크게 기여하길 바라는데 인천문화 라든지 인천의 콘텐츠를 실국의 사업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것이라고 생각함.

- 재정건전화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그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주길.
- 해외홍보강화에 바이럴마케팅 추진방법은?
- 중간 매개 집단과 소통이 되는 파워블로그 그룹을 통해 활용하려고 함.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.

< 유일용 위원 >

- 인천의 꿈 인천의 미래.. 꿈이라는데 어떻게 미래와 연결되는지 이해가 안됨. 꼭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.. 꿈은 예측불허다. 용어 선정에 다소 문제가 있음. 전에도 지적한 부분이었음. 인천의 비전이 맞는거 같다. 검토해주시길..
- 네
- 인천에서 기업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투자유치다. 외국에 투자시 주의점이라든가 구조관계 등 투자유치단에서 하고는 있지만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.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대처방법 등 반드시 홍보해주길 바람.

2. 2016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

※ 참석위원 : 5명(차준택, 유일용, 허준, 신영은, 이영훈)

□ 자료요구 : 없음.

□ 주요 질의내용

< 허준 위원>

- 시원소통 인천 사이트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?
- 시정내용, 불통사례 접수, 소통관련 자료들을 올려놓고 시민들이 공유하도록 하고 있음.
- 작년 하반기 자료도 없던데.. 관리가 안되는거 아닌가?
- 작년 하반기 소홀한 부분이 있으나.. 연말에 보완하도록 했음.
- 관리를 안하면 없느니만 못함. 신경써주도록.
- 배너 등 더 신경 써서 보강하도록 하겠음.

< 신영은 위원 >

○ 직소민원실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최대 서비스를 해주시길 바람.

→ 작년 직소민원실을 만들었는데 상대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함.

○ 두가제 요구사항이 있음. 첫째는 그린벨트지역이 많은데 그곳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다. 해당부서와 그 주민들과 간담회 요청하고, 둘째는 아시아선수촌 거의 입주를 다 했는데 교통에 불편사항이 많다. 이것도 해당부서와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주셨음 좋겠음. 담당관께서 중간 역할을 해주시기 바람.

→ 알겠음.

< 이영훈 위원 >

○ 시에서 사업추진 할 때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 같다. 어떤 사업이든 항상 반대 민원이 많으니까 선행이 필요하지 않을까?

→ 사업 초기나 구상 단계에서 사전에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. 실국에 더 알리도록 하겠음.

○ 관에서 일방적 사업 추진하는 시대는 지났음.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에 알려주시길.

→ 네

< 유일용 위원 >

○ 소통과정에서 해당부서나 시민이 소극적일 수 있고 협력이 부족하여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음. 해당부서와 업무협조는 잘되나?

→ 부서마다 차이가 있는데 시장실 연관되는 직소민원은 적극적임.

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협조하는 부분이 달라지니까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함.

○ 직급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?

→ 시장 직속부서이고 소통부서의 중요성을 많이 알고 계셔서..

크게 어려운 점은 없음.

○ 대내.외 소통 활성화를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하는데 간담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길.. 필요하면 의원도 참가해서 열린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거 같은데?

→ 자유토론 진행할 때 등 필요하면 의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음.

< 차준택 위원 >

○ 최근 언론보도에 국방부에서 흩어져 있는 예비군훈련장을 부평에 김포, 부천 훈련장까지 다 통합한다는 기본계획이 나왔는데.. 직접 관계되는 부서는 아니지만 인천시에서 공식적 입장을 정하고 대응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. 잠재적인 민원 가능성이 많은 부분임..해경본부이전도 초동대응이 늦어서 그랬듯 이 문제도 시 입장에서 검토하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.

3. 2016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

※ 참석위원 : 4명(차준택, 유일용, 허준, 이영훈)

□ 자료요구 : (이영훈) 15~16년 감사대상기관 비교자료

□ 주요 질의내용

< 유일용 위원 >

○ 감사를 잘해서 상을 받았다는건 행정이 허술하고 비합리적이어서 감사받을게 많았다는 반증일 수 있다. 그 점에 대해선?

→ 감사를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해서 받은건 아니고 감사의 제도개선, 규제개선 및 발굴사례, 시민 불편사항 개선 사례 등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질문의 성격과는 다름.

○ 선심성, 소모성예산 개념이 충돌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? 감사지적 기준은 뭔지?

→ 행사가 중복되고 이름만 바뀌서 하는지,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지.. 그런 것에 역점을 두고 사전분석 하는 것임.

○ 그것이 정규감사, 표적감사? 어떤 성격이죠?

→ 정규, 표적감사는 물론 아니고 군구에서 계약심사 등 자료 올라오는 데 컨설팅 형식으로 하고 있음.

< 허준 위원 >

○ 2016년 정부합동감사 수감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?

→ 정부에서 10년간 했던 일임. 손님이 오는 것이므로 숙박, 음식, 간식 하나까지도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할 예정이고 피수감 부서에 자료제출 등 만전을 다하고 있음. 차질없게 준비하겠음.

○ 기관장의 무분별한 권한행사 방지를 위한 기관 패널티 적용한다 했는데 어떻게?

→ 일단 컨설팅으로 하고 잘 되지 않으면(예산낭비나 선심성 예산 등이 있을 경우) 기관경고를 하고 예산에 패널티 주는 제도가 있음.

중앙에서는 교부금에 패널티를 주고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하려고 함.

< 이영훈 위원 >

○ 감사대상을 보면 전년도 73개에서 많이 줄었다 왜?

→ 감사의 실효성을 위해 관련된 건 묶었음. 소방서도 소방본부에 넣었고..사업소 또한 그러함.

○ 전년도 금년도 비교하여 감사대상 기관 자료 제출바람.

○ 행감지적사항 중에서 SPC 관련 법률상 접근하기 어렵다고 했었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?

→ 바로 투입해서 감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감사원 사례 등을 공부하고 있음. 아직 감사원에서도 직접적 감사는 없었음. 도시공사나 경제청 등 연결하여 감사를 해야..

○ 거기서도 감사할 명분이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?

→ 아직 연구단계인데 비집고 들어가면 틈이 보일 것 같음.

접근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음.

○ 아주 취약한 부분이고 금전적인 부분도 큰 손해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임.

→ 자료요구도 하면서 하반기에는 가시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음.

< 유일용 위원 >

- SPC감사 법적 근거는 없을 것임. 주주가 즉 돈을 투자한 사업자가 집행기관에 자료요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. 그 권한 행사를 우리가 요청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. 간접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직접적인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임. 참고하도록.

→ 네

< 차준택 위원 >

- 감사표창으로 인센티브 1억5천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된거죠?

→ 아직 받지 않았고 예산에도 반영 안됨.

- 어느 정도는 해당부서에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.

→ 저는 처음 들었음.

- 감사관실이 힘든 부서이고 직원들과의 교류가 없는거 같은데 직원 교류방안을 마련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한 후 감사실 예산반영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람.

→ 네

일	시	차수	심 사 안 건	비고
2016.1.27.(수)	10:00	3	1.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. 2016년도 행정 관리국 주요업무보고 3. 201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4. 2016년도 인천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보고	

보고자 :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왕 동 항